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4년 2월 9일(주일) 제986호

하나님이 총사령관

Acts29 비전컨퍼런스 ... 바로 그 교회 꿈 이룰 정체성 공유
이제 온누리 모든 교역자 뭉친다, '12기 목회사관학교 개강'

제주에 봄이 왔다. 유채꽃이 망울을 틔웠고, 푸른 바다도 적막하지 않다. 만물의 생명이 움트고 있다. 봄소식 가장 빨리 전하는 제주에 30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모였다. 안식과 여정을 위해, 그들이 봄소식과 더불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올해도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는 소식.

30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제주도에서 Acts29 비전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박3일 동안 쉬 없이 미주, 오세아니아, 일본, 중동, 동남아, 중국에서 쓰고 있는

Acts29비전을 이야기했다. 이민목회의 어려움도 나눴다. 온누리교회 스피릿도 공유했다.

다짐이 남달랐다.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총사령관이라는 것을 가슴에 또한번 새겼다. 겸손과 순종, 말씀

에 귀 기울이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부르짖었다.

이제 제주에서 전해진 기쁜 소식이 성령의 바람 타고 여주로 옮겨진다. '선교'를 주제로 12기 목회사관학교가 개강한다. 선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한다. 또 한번 비상할 온누리교회를 꿈꾼다.

〈관련기사 7면〉



2천선교비전컨퍼런스

>> 2면

이단 바로알기

>> 8면

서빙고 상담실 이용현황

>> 9면

2월15일

확대당회, 오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교역자, 장로

2월 16일

2부 예배 후 제직회, 교역자, 제직
3부 예배 후 공동의회, 18세 이상 교인

2014 온누리교회
선교방향



교회 밖 성경공부를
하지말자.
신천지 주의보



부부/가족관계로
상담실 찾는 성도
가장 많아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

‘소통하는 선교, 준비하는 선교’

공동체와 소통하는 ‘순 선교’
다양한 포럼 개최해 미래 준비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에서 선교 리더십 300여 명이 ‘공동체와 소통하는 선교’, ‘온누리교회 선교의 미래를 준비’ 하는 한 해를 보내기로 했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방향이 발표됐다. 골자는 순과 선교사의 소통과 온누리교회 선교 미래준비다.

지난달 24일과 25일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열린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에 참석한 선교리더십들은 ‘공동체와 소통하는 선교’,

‘온누리교회 선교의 미래를 준비’ 하는 한해를 보내기로 다짐했다. 공동체와 소통하는 선교를 위해 순 선교 제도를 도입한다. 선교사 후원사역부도 개설했다. 선교사역자 스쿨 및 캠퍼스 순회 주일 선교집회 등도 시작된다.

또한 온누리교회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다각적인 선교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외에도 블레싱 비엔티엔(라오스), Acts29 비전빌리지 종합선교센터화, 선교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이번 비전컨퍼런스에서는 ‘응답하라 1994’를 주제로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온누리교회 선교역사를 되돌아봤다. 올해 선교비전도 공유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천선교본부장 도육환 목사와 함께

순과 선교사가 소통합니다



“지금까지 선교본부는 현장사역에 집중해왔습니다. 선교사를 관리하고, 선교 전략과 정책에 집중해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는 공동체와 소통하기 위해 순 선교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책임선교지제도’를 ‘책임선교사제도’로 변화시키며 공동체와 선교사가 소통하도록 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에 선교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가 선교사와 순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선교소식을 순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순과 선교사가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2천선교본부는 순과 선교사의 소통을 돕기 위해 선교사 후원사역부를 개설했습니다.

1월부터 사역을 시작한 선교사 후원사역부에서는 기도편지 제작, 대륙별 중보기도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선교사별 기도모임을 개최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선교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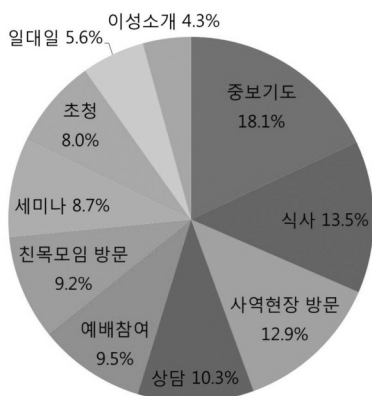
2014년 온누리교회 선교 10대 사역

1. 공동체와 함께 하는 선교
2. 창립 30주년 및 27기 온누리교회 선교 준비
3. Blessing Viantian(LAOS)
4. Acts29비전빌리지 종합선교센터화
5. 선교역량의 집중
6. 타문화권 사회선교 확대
7. 선교사복지제도 확대
8. 지속적이고 다원화된 선교동원
9. 선교 리더십 역량 강화
10. 국내외 선교네트워크 확대



대학·청년부 2014 멘토 비전나이트

대학청년부, 선호도 설문조사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멘토들의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할까.

대학청년부(이하 대청)가 순장이상 리더십 700명을 대상으로 멘토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보기도(18.1%) 하는 멘토들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



로 조사됐다. 이어 식사대접(13.5%), 사역현장 방문(12.9%), 상담(10/3%), 예배참여(9.5%), 친목모임 방문(9.2%), 세미나(8.7%), 일대일(5.6%), 이성소개(4.3%) 순이었다. ‘웃어줄 때’, ‘존재 자체만으로 힘이 된다’, ‘안부 물어봐 줄 때’ 등의 응답도 있었다.

“중보기도 하는 멘토가 좋아요”

이번 설문조사는 ‘2014 멘토 비전나이트’에서 실시했다. ‘멘토 비전나이트’는 대청교역자, 멘토, MC들이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지난 2월 3일(월) EM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대학부 3개 공동체와 청년부 7개 공동체 멘

토·교역자·MC 124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2014 멘토 매뉴얼’도 배포됐다. 매뉴얼에는 대학청년부 사역소개, 멘토의 역할 2014년 계획, 담당 교역자·멘토·MC들의 연락처가 담겨 있다.

/ 정현주 기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눅 5:1~11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고난 없이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굳이 왜 고난의 길을 가느냐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과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권세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도 사람이 물려들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려는 수많은 무리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첫 제자를 찾으신 곳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를 찾은 곳은 갈릴리 벳세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류를 변화시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어디서 동역자를 찾으시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 어부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이 많은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첫 번째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찾지 않으시고 갈릴리 벳세다에서 첫 번째 제자를 찾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큰 은혜와 도전 그리고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과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위대한 가능성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

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 제자들의 사명

사도행전을 보면 지성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벳세다 출신의 어부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보고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젊은이들 중에서 제자를 삼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 중에서 첫 번째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할 일들을 어부라는 직업이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10절).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은 바로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어부들은 한 마리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성경에 큰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을 물고기에 비유하고, 세상을 물에 비유한다면 멸망당할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고기를 물에서 건져내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어부 중에서 첫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누가복음 5장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이전의 사건들에서 베드로는 적어도 두 번 이상 예수님과 대면했습니다. 첫 대면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

아인 것을 발견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름을 시몬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차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의 아랍어식 발음입니다.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구약을 성실하게 읽고 이해한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꾼 것은 귀하게 쓰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이 간청을 받고 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는데 베드로가 모른척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의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옛 지명입니다. ‘게네사렛’, ‘디베라’, ‘갈릴리’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찢고 있는 어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처럼 예수님 가까이서

따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자신의 이름도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Savior)이기는 하지만 주님(My Lord)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도 보았지만 제자로 헌신할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벽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물려들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배가 두 척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찢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고 그물을 찢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쳤습니다. 시몬의 배를 강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군중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따르기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찢고 있습니다. 그물을 찢고 있다는 것은 일과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부는 육체노동을 하는 직업입니다. 쉬어야 될 때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주일강단 12면에 계속)

우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새로 세워진 캠퍼스 담당목사들을 만났다. 주인공은 서빙고 박종길 목사, 양재 이상준 목사, 수원 신기섭 목사, 대전 박태영 목사, 평택 김소리 목사, 인천 서경남 목사다. 그들의 신앙과 가족, 포부와 비전을 들을 수 있었다. / 특별취재팀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수 닮은 좋은 목사 꿈꾸는 ‘박종길 목사’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다보니 교회에 계속 나가고 싶었어요. 목사는 교회에 계속 나오니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신학교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저의 첫 전임목회지입니다. 1993년 1월 1일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96년 3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지 벌써 22년 되었네요.

아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문학 서클에서 만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연애를 10년 했습니다. 결혼한지는 25주년 되었으니 벌써 35년을 사랑한 사이죠. 큰 아들은 대학졸업 후 보스턴에서 직장생활 중이고 작은 아들은 캘리포니아의 바이올라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담임목사님이 시키는 일 열심히 잘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는 순종과 인내예요. 리더십에

대한 순종, 권위에 대한 순종, 어른에 대한 순종을 말하지요. 힘들다고 포기한다든지 후퇴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큐티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잘해요. 단점은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요. 살면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둘째는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누리교회와 하용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제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갔다가 여름성경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농번기에 저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교회에 보내셨던 거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날 이후 서울에 와서 집 근처 교회를 다녔어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박종길 목사. 가족과 함께 큰 아들 대학졸업식에서.

양재 온누리교회



자신을 살린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이상준 목사’

그러던 제가 어느 전도사님이 준 성경책을 3개월 만에 읽으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살을 목상하던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병치레도 잦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살린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살에 인생이 바뀌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영어가 기본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영어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GBT와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번역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생겼고, 성경에 대한 관점 없이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같은 학교 영문과 3년 후배였습니다. 영문과 기독교인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아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생겼습니다. 1,000일을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교제하면서 우리는 1999년에 결혼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만났습니다. 진짜 1999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제 전화번호 끝자리가 9925인데 저희 결혼기념일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내와 아들 둘(이지성, 이지훈)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모습을 보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최근 교회에 사회선교부가 신설되었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또한 저의 장점은 끈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집요하게 해냅니다. 약점은 생각보다 성격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3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중학생 때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한번은 어머니께서 삼형제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6학년이었던 큰형은 장가는 가보고 죽어야겠다고 대답했고, 5학년이었던 작은형은 돈 많이 벌어서 좋아하는 자장면 먹고 죽을 거라고 답했고, 3학년이었던 저는 ‘세상 험한 꼴 보지 않고 좋지 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이상준 목사. 아내와 두 아들(지성, 지훈)과 함께.

수원 온누리교회

입소문 날만큼 뜨거운 예배 꿈꾸는 신기섭 목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가져 4대째입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영수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목회자와 장로를 합친 역할이었죠. 하지만 저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대학 입학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1982년 2월 제가 다니던 교회에 홍정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신학공부 하는 것을 반대하셔서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 서울로 와서 1989년부터 온누리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학공

부 하는 것을 반대하시던 어머니께서 새벽예배를 가시면서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어요. 챔버를 하는 자매였습니다. 순장들이 서로의 순원을 소개시켜주었는데 그때 아내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기가 조금 늦게 생겼어요. 지금은 고3이고요, 대학입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해주세요.

저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교역자가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목회자를 꿈꿉니다. 목회자가 리더십을 갖고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내지 않더라도 삶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또한 입소문이 날 만큼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교역자는 수요일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예배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신기섭 목사. 아내와 딸과 함께 다정하게 찍은 가족사진.



가 좋으면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큐티를 보니 서로 화평하고 거룩하기를 추구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이 제 은사가 아닐까 합니다. 또 인테리어를 잘합니다. 부전 온누리, 상해 온누리에서 사역할 때 솜씨를 발휘했었습니다. 단점은 고집이 있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전 온누리교회

충성과 헌신으로 무장한 ‘박태영 목사’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사형선고를 받으셨을 때 큰어머니의 전도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신 그날 저녁부터 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고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면서 큐티, 일대일, 강해설교를 통해 말씀 속에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고, 제 안에 상처나 열등의식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 6-11절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 대학부에 다니면서 경배와 찬양 사역을 섬겼습니다. 예배와 선교에 대한 강한 훈련과 도전을 받았고 평신도 선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무슬림 나라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제자 양육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라면 풀타임으로 함께 가자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군 제대 후에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합동신학대학교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는 중고등부를 섬겼습니다. 온누리에서는 2002년부터 시작해서 기획 실행, 총괄, 총무 역할을 많은 부분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는 양육본부장과 대전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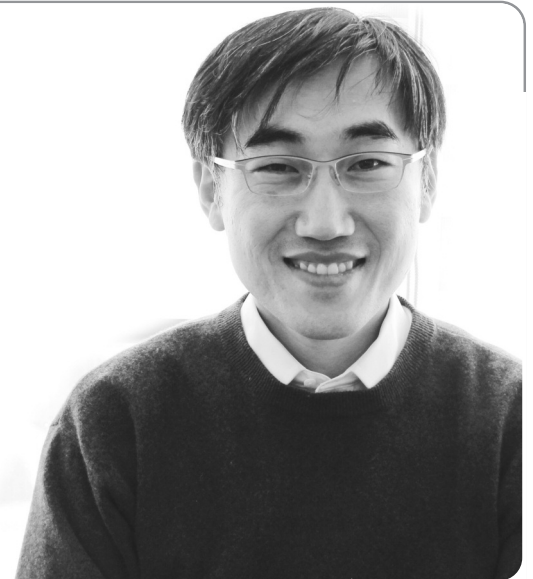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 헌신, 창의력, 일대일 케어가 장점입니다. 일할 때는 철두철미하다는 말을 듣지만 사실 마음이 여러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약점은 지나친 배려심(?)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속을 잘 못 챙기는 편입니다.

아내는 큰누나와 매형이 소개시켜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자가 아니면 평생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보면서 함께 한다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정도 교제하고 28살에 결혼 했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자녀 네 명입니다. 세진이 16살, 유진이 13살, 하진이 7살, 막내 의진이 5살입니다. 작년까지 홈스쿨링 10년을 했었고, 지금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대전 온누리

“저는 온누리교회 성도에서 목사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온누리교회의 비전이 곧 저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꿈꿉니다. 더불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회 선교에



도 관심이 많습니다.

대전 온누리교회에서는 40일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나누고 결정했습니다.

예배의 기쁨 부으심과 양육, 돌봄을 통해 그것을 이뤘다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전 교역자에서 평신도까지 교회와 사역자 자신의 영성훈련을 위해 기도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진행하는 교역자 일대일 훈련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예배는 온누리 핵심가치와 성도의 삶 등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 온누리교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김소리 목사'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감사하게도 축복받은 인생으로 시작했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좋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천안문 사태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중국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부르시면 순종할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고, 신학대학원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100기 출신인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스무 살 때 제가 다니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교사와 반 보조교사로 섬기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로 지내다가 7년 동안 교제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일찍 했는데 아기가 생기기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어렵게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지금 18개월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없던 시간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의 터널과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난임 가정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뜻하는데요. 목회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원하셨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생이었다면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름에 담긴 비전을 따라 사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김소리 목사와 사모가 결혼 10년 만에 얻은 딸과 활짝 웃고 있다.



평택 담당목사로 부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와 새가족,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새벽제단의 100명의 기도용사를 세울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교회 이다 보니 새가족이 귀합니다. 그들을 잘 돌볼 것입니다.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도 고민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족속이 예배드리는 그날 꿈꾸는 '서경남 목사'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 남미에 살면서 선교를 배웠어요. 그곳에 한국교회가 없어서 처음에는 성당에 다니다가 미국 유학 중에 교회를 만나게 되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듭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1987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르심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그러다 북한선교의 사명을 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풀러(Fuller)신학교를 갔고 학교를 다니면서 두란노에서 편집부장으로 일했어요. <생명의 삶> 영어판을 제가



담당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후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판 번역을 담당하다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고 1997년 온누리교회에 왔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큰 어머니의 중매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세 번 보고 2주 만에 결혼했어요. 그냥 ‘저 사람인가보다’ 하고 결혼했지요. 그렇게 34년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은 2년 전에 결혼했고 아들은 아직 싱글입니다. 저와 아내만 한국에 나와 있어요.

모든 족속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선교의 문이 열렸으면 하는 것이 기도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곳이 북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열리면 그곳에 온누리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가 북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의사였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마을을 섬기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항상 큰 도전이 됐습니다. 아버지



께 물려받은 믿음의 기업 이업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4개 국어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약점이라기보다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피부가 너무 까맣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온누리미션을 섬기며 깨달은 것이 ‘이 색깔을 갖고 어디를 가나 친근감을 줄 수 있겠구나’ 였죠.”

웃는 모습이 많은 서경남 목사 가족. 서 목사는 까만 피부(콤플렉스)와 4개 국어 능력(장점)이 어우러져 어디서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했다.

남양주

평택

새벽기도 이어 성경 읽기



남양주는 신년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전교인이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가 3년째다.

1/27일과 28일 전교인 대상

지난 1월 25일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전교인 성경읽기' 과정을 열었다.

전교인 성경읽기 과정은 올해 3년째다. 남양주 온누리가 매년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여는 전통적인 행사다. 이번 과정은 1월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1박2일 동안 진행되었다. 범위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읽기 첫날은 이사야부터 예레미야에 가까지, 둘째날은 에스겔부터 말라기까지 읽었다. MP3를 틀어놓고 통독을 시작하고

마지막 장은 모든 성도가 한 목소리로 통독했다.

김은실 권사는 "전교인 성경읽기에 참여하고 성경읽기가 친숙해졌다"고 했다. 그녀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이 참여했던 교우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말씀 읽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년에 걸쳐 구약과 신약을 통독했다는 권혁희 권사는 "성령님께서 사로잡힌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13명이 평택 전도스쿨을 수료했다. 명단:김선종, 김소정, 김언석, 김종숙, 김현순, 박영진, 박은경, 송미선, 송영미, 엄연정, 여경희, 유애란, 최명자 (이상 13명)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 “전도에 자신감 생겼다”

전도스쿨 종강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보았지만 참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온누리 전도스쿨의 기본 매뉴얼을 따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도하니 역사가 이루어지더군요.”

평택 온누리 전도스쿨 세미나를 수료한 김선종 집사의 고백이다. 김선종 집사는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걸어야겠다고 다짐하고 가족과 함께 온누리 전도스쿨에 신청했다.

스쿨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호스

피스 병동에서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다. 많은 결실이 맺혔고, 안 믿는 친척들도 전도해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졌다.

“보통 사람은 소망만 가지고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의 꿈을 쫓습니다.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 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박익새 기자

안식과 여정, 해외 목회자들 한자리에

비전 컨퍼런스, 제주도서 열려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의 안식의場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끝났다.

제주도 Y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안식과 여정'. 미주, 오세아니아, 동남아, 중동, 일본, 중국 등 30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2월 4일(화)부터 7일(금)까지 3박4일 동안 열린 컨퍼런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은 이재훈 담임목사의 강의를 듣고 온누리교회의 목회비전을 공유했다.

이재훈 목사는 여호수아 5장 13~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총사령관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라”고 권면했다.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은 매년 두차례 열리는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 자연 속에서 휴식한다. 이번에는 한방테라피, 영화 관람, 티스톤 체



험, 탄산온천 체험, 순례의 길 걷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인 묵상과 지역별 나눔을 통해 이민목회의 어려움과 은혜도 풍성하게 나눴다.

유현목 목사(뉴질랜드 온누리교회)는 “이재훈 목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욕보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서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덧붙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은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 안식을 경험한다. 사진은 마라도에서 찍은 것과 이재훈 담임목사의 강의를 듣는 모습.

여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애쓰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됐다”고 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2014 신년특집 - 온누리교회와 CGNTV

복음 심고 지구 끝까지

CGN(Christian Global Network)TV는 2005년 태어났다.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곳에도 위성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CGNTV의 전신은 온누리TV다. 2000년 온누리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지털 목회를 선언했다. 그해 5월 온누리TV가 시험방송을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온누리TV 개국과 동시에 '디지털 세상, 불멸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온누리 사역축제(OMC)를 열어 사이버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공유했다. 12월에는 온누리 라디오까지 전파를 쏘아 올렸다.

온누리TV는 방송 8개월 만에 전체방문자 100만 명, VOD 1,542개, ADO 1,742개 하루 평균 1만3천 명이 접속하는 영향력 있는 방송국으로 자라났다. 월요큐티집회, 화요성령집회, 수요집회, 토요청년집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방영했다.

선교방송 선두주자로 우뚝

온누리TV는 2005년 3월 29일 더 큰 위성선교방송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CGNTV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용조 목사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열방에 CGNTV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CGNTV는 개국과 동시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위성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 케이블, IP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 미주지사를 설립하고 대만, 아랍 에미리트, 태국 등지에 제작센터를 오픈했다. 인도네시아 지사도 오픈 준비가 한창이다.

CGNTV는 개국한지 9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방송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현재 5개 위성 6개 빔을 설치해 170여 개국에서 24시간 동안 언어권별 맞춤선교방송을 하고 있다.

2014년 CGNTV는 '선교지향', '복음 중심', '섬김 실천'을 3대 가치로 내걸었다. 선교, 교육, 사회적 소명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크리스



CGNTV는 개국 9주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교방송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현재 5개 위성 6개 빔을 설치해 170여 개국에 24시간 동안 언어권별 맞춤선교방송을 하고 있다.

천방송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소외 계층과 청년대학생, 시니어 세대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될 것으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신년기획 - 이단 바로알기 3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천지교회 신도들이 교회 내로 침투해 활동하면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 교회 밖 성경 공부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 중심 신앙생활 벗어나면 문제 생긴다”

최근 한국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단 단체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이다. 신천지교회의 훈련받은 신도들이 정체를 감추고 교회 내로 침투해 활동하면서 한국 교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한다!

성서와 기독교 역사는 이단이 교회 밖에서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항상 교회 안에 뿌리를 두고 발흥하고 소멸해 왔다. 신약성서를 보면 초대 교회에서 활동하던 이단들의 모습이 보인다. 갈라디아서(2:4)를 보면 교회로 들어와 예수 안에서 자유한 이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이단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초대 교회는 전선 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신앙과 신학이 확립되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한국 땅에 이와 유사한 포교 전략을 가진 이단이 나타났다.

신천지교회의 설립자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한다. 이 씨의 주장을 따르는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들의 숫자가 14만 4000명이 되는 날 자신들이 왕과 제사장이 된다고 믿고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천지는 다양한 포교 전략을 구사한다. 교회에 침투해 청년 회장이 되기도 하고, 청년부 성경 공부 순장이 되어 청년들을 미혹

하고, 구역장이 되어 구역 식구들을 통째로 신천지로 데리고 가기도 한다. 과외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기도 한다.

신천지에 미혹되면 6개월여의 교리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기간을 시작으로 가정불화와 가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하지 말아야

문제는 가짜 이단들은 진짜처럼 성서를 많이 읽고, 진짜 신앙인들은 가짜처럼 성서를 읽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이다. 명품을 아는 사람만이 위조품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이단을 분별할 수는 없다. 신앙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만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다.

신천지교회는 성서만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초중급 과정의 교리 교육을 마치면, 이들은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등 이만희의 저서들을 가르친다.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의 해설과 증거는 모세 때(신28:4)에도 예수 초림 때에도(마13:34-35) 밝히지 아니한 천국 비밀을 오늘날 드러내어 밝힌 것으로서 기독교 최고의 값진 내용의 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교리가 비성서적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신천지교회 문제는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신천지교회로 인한 가정 파탄과 설립자 이만희에 대한 신격화 문제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다. 한국 교회의 공익을 위해 신천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신천지교회 신도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서 신천지 교리 학습과 주변의 기성교회 교인들에 대한 포교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주변 기성 교회에 교인으로 가장하여 침투한 후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연을 가장해 치밀하게 다가오는 신천지 신도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신천지의 진화하는 포교 전략과 그들의 파상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긴다. 목회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이단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 이 글은 이단문제 전문가 탁지일 교수가 저술한 <목회와 신학 총서>에 실린 내용을 발췌 및 요약했습니다.

2013년 이용현황 조사

서빙고 상담실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가족/부부관계 문제로 상담실 찾는 성도 가장 많아
30대, 여성 多 ... 해마다 상담 건수 증가세

가족/부부관계 문제로 상담실을 찾는 성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빙고 상담실 2013 이용현황조사에 따르면 성도들은 신앙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 진로, 자녀, 성 등의 문제로 상담실을 찾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도들의 주호소 문제는 가족/부부(43.5%), 아동/청소년(10.4%), 대인관계(17.7%) 순이었다. 이는 전체 상담 비율의 71.6%나 차지한다. 이어 성(2.7%), 진로(3.3%), 우울/조울(8%), 불안/강박(5.4%), 분노(3.3%), 신앙(4%), 기타(1.7%) 등의 문제로 상담실을 찾았다.

지난해 2,196명의 내담자가 서빙고 상담실을 찾았다. 연령은 30대(36.8%)가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6%), 50대(13.4%), 10대(9.7%), 20대(9.4%), 60대 이상(4.7%)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81%) 남성(1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교별로는 온누리교회 성도(49%), 타 교인(45%), 무교(5%), 가톨릭(1%) 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1,063건), 2006년(1,272건), 2008년(1,818건), 2013년(2,196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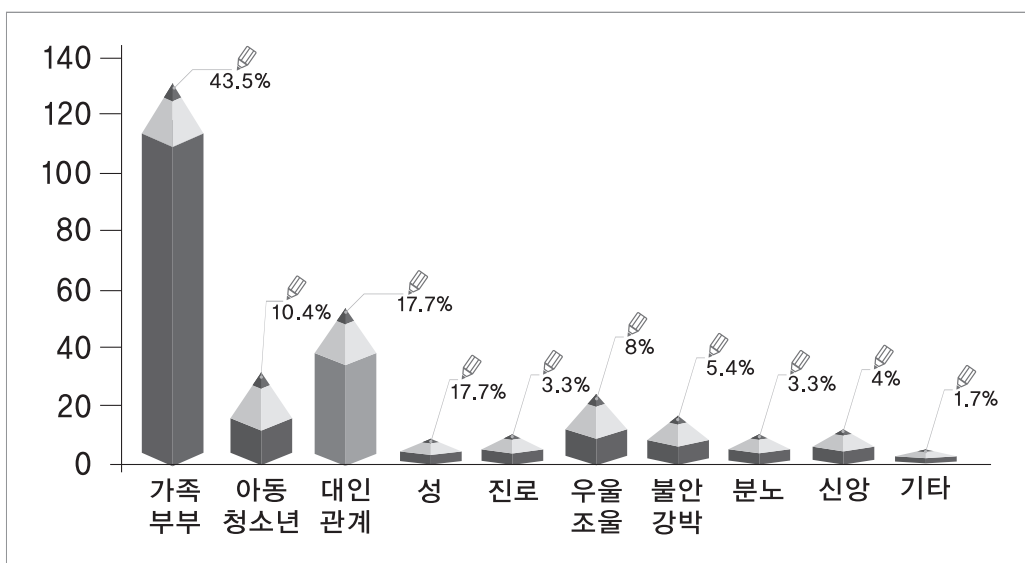
온누리 상담실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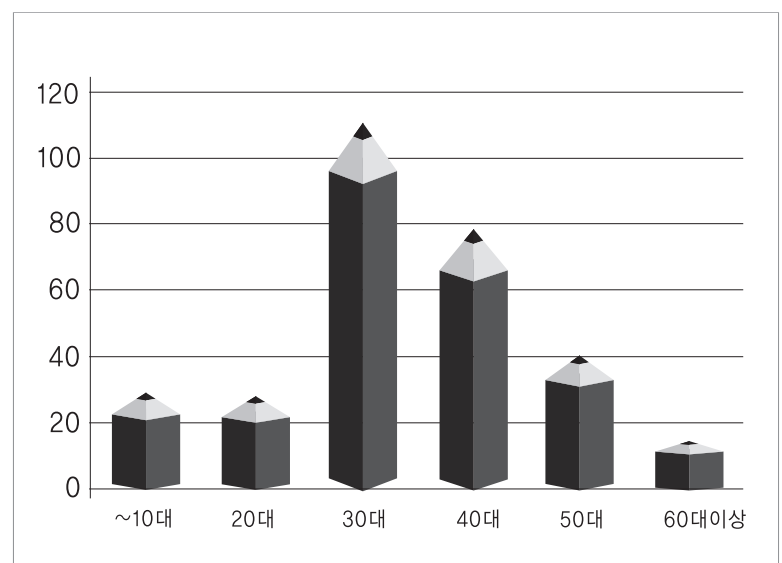
지하 1층, 양재 온누리교회 원형커뮤니케이션 자동문
안쪽에 있다. 문의: 02)793-2997(서빙고)

02) 570-7537(양재)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무엇을 호소하나



연령별 추이

칼럼



강미향 목사
(서빙고 상담실)

이 세상의 삶은 참 고단하다.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가.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연이 다양하다. 각자의 신앙생활에서도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믿음인지, 친구관계, 공부, 결혼, 가족관계,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사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노후 대책에 대한 고민, 아픈 자녀들을 끌어안고 애 통해하는 모습, 건강의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여러 상황들, 앞이 보이지 않은데서 오는 답답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걸어 다니는 인간문서를 보는 것 같다.

성경적 세계관 디자인하는 '온누리교회 상담실'

이런 저런 이유로 상담실을 찾는 이들이 많다. 예전에는 큰 문제가 있어 오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이제 자신의 삶 방향을 잘 잡고 가는지 확인하며 자신의 삶을 보다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해 찾는 경우도 많다. 온누리 상담실은 성도들을 위해 쉼만한 로템나무가 되고 싶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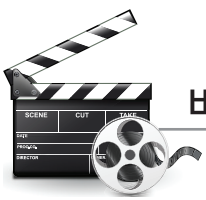
온누리 상담실은 자원봉사개념의 상담사역자 20여명이 포진하고 있다. 대다수 상담을 전공한 석·박사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그들은 자기의 전공을 살려 성도들을 돕고 있다.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상담사역자가 되려면 온누리 상담실에서 진행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1년 총 2년 과정을 다시 수련한 다음 자원봉사자로 상담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상담료가 무료이기에 최고의 수준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 사랑으로 자원봉사 상담선생님들이 일주일에 2번, 하루는

지속적인 상담이론과 임상훈련을 받고 하루를 더 내어 상담봉사 시간을 갖고 있다.

온누리 서빙고 상담실의 경우 1년에 2,000회기가 넘는 면접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신청 대기자들이 많아 상담예약 후 1~2달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대책을 강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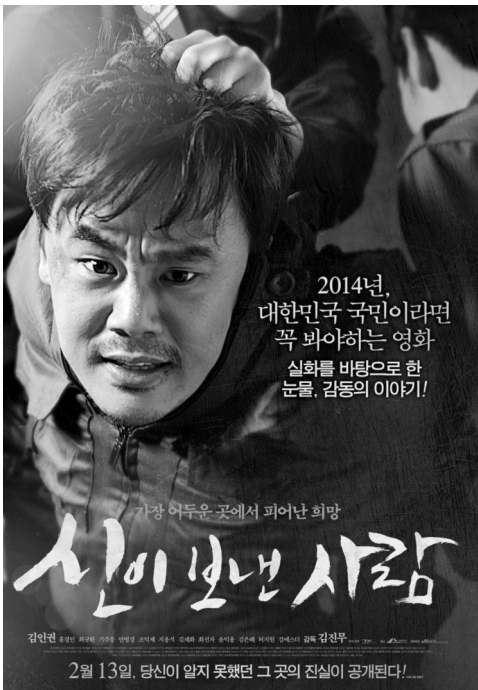
신앙, 가족상담, 아동,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각종 심리검사, 주일에 열리는 정신과, 세무상담, 법률상담, 인터넷 중독, 암환자가 죽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 성도님 중 자신의 전문직을 사용, 주일에는 성도들을 위해 수년간 섬겨주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감사하다. 그들은 안다. 물 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그 사랑의 현장에서의 감동. 사람의 인생은 받을 때보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 속에 의미 있는, 보화와 같은 삶을 체험해 가는가보다. 상담실에서 지켜본 상담사들은 한결같이 행복해하고 그 자리

를 지킨다.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를 간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현장을 지킨다. 믿음 안에서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실천의 현장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궁극적으로 상담실이 '전인적인 온누리건강센터'가 되기를 소망한다. 믿음 안에서 영적인 건강함과 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누리고 그 누림이 자신의 개인적 누림에서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크리스천의 소명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을 디자인해 줄 수 있는, 치료뿐 아니라 예방적 삶을 그려줄 수 있는 상담센터. 성도들의 삶에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세상 속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것이 Acts29를 써가는 우리의 마음. 온누리교회 상담실이 되고 싶다.



바로 그 영화

“목숨도, 믿음도 살아남아야 지킬 수 있는 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신이 된 나라, 북한. 그곳에 독재체제 하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20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있다. 2월 13일 개봉하

는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1년 동안 탈북자 단체와 새터민들, 선교단체와 북한 인권단체의 사람들을 만나며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크리스천 감독과 배우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영화 제작비 모금 프로젝트 진행 당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개해 영화제작의도를 알렸고 제작비도 마련했다. 평양대부흥 운동의 현장,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북한이 지금은 성경이 없어 손에 말씀을 써서 읽고, 찬송도 숨어서 하는 땅이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도 절박하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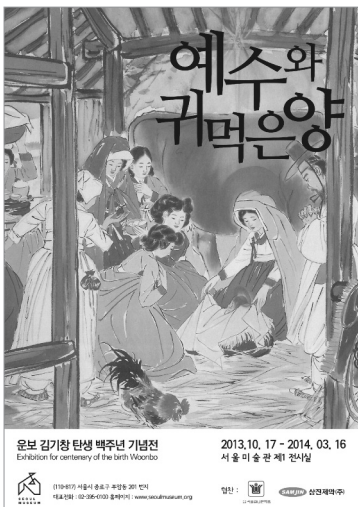
북한에서는 종교를 가지면 1급 정치범으로 분류된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서 고된 노동과 학대 속에 살아야 한다. 이미 5만~7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

“남조선은 가나안 땅입니까?”

주인공 철호가 던지는 이 질문이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 박익새 기자

가볼만한 전시회



윤보 김기창 탄생 100주년 기념전 한국적 성화(聖畵) ‘예수의 생애’

서울미술관 3월 16일까지

윤보 김기창 탄생 백주년 기념전 ‘예수와 귀먹은 양’이 부안 동 서울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전시회는 서양 성화를 한국적 풍속화로 그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치마저고리를 입고 물레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 선녀로 변한 천사 가브리엘, 갓 쓰고 도포 입은 선비 모습의 예수. 조선시대 토속적 마을풍경을 전시했다. 서양성화와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다.

윤보 김기창 화백은 만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세종대왕 초상도안자다.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예수의 생애’ 시리즈는 한국전쟁 피난시절 그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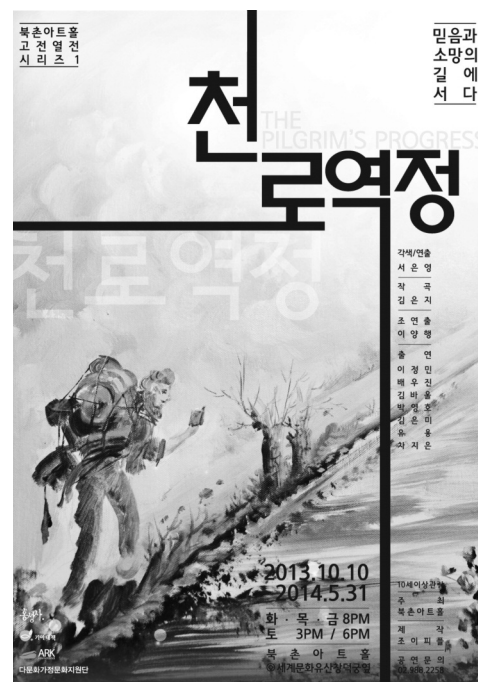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앤더스 젠슨 선교사가 한국적 성화작업을 권유했다고 한다. ‘예수의 생애’ 시리즈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3월 16일까지. 관람시간: 11시~19시, 월요일 휴관.

윤보 김기창 화백, 1913년 출생. 7살때 장티푸스로 인해 후천성 귀머거리가 됐다. 1930년 이당 김은호의 제자로 입문하여 그림공부 시작하였다. 1979년 한국농아복지회 창설, 1984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인 청음회관을 설립했다. 대표작으로 ‘예수의 생애’ 시리즈를 비롯하여 인물화, 청록산수, 바보산수, 바보화조 등 다양.



봄맞이 연극 한편

베스트셀러 〈천로역정〉 연극으로 재탄생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존 버니언의 소설 〈천로역정〉이 연극으로 재탄생됐다.

연극으로 재탄생한 한국근대 첫 번역 소설 천로역정이 북촌아트홀에서 5월31일까지 막 오른다.

‘천로역정’은 1678년 출판된 종교소설이다. 1682년 네덜란드어로 번역된 이후 120개국에 소개된 기독교 문학고전이다.

연극은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던

필그림(순례자)이 신으로부터 도시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로 시작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필그림의 경고를 무시한다. 현실에 절망한 필그림은 홀로 ‘하늘성’을 향해 순례를 떠난다. 그 여정을 극화했다.

관객평은 호평일색이다. 아이디 csi09**는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했고, 아이디 nymph19**는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감동적이다”고 평했다. 관람료 3만 원, 북촌아트홀 회원 30%할인. 문의 : 02-988-2258



존 버니언
(JOHN BUNYAN, 1628-1688)

17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설교자.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읽고 쓰기에 필요한 초보적인 교육 외에는 평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아내가 가져온 두 권의 종교서를 통하여 지식과 신앙에 눈을 뜬 존 버니언은 문학적인 소양이나 훈련없이 30년 동안 60여권의 책을 썼다.

북촌 일대 가 볼만한 곳

북촌아트홀 근처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창덕궁, 조선 왕조 제일의 법궁인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삼청동 카페골목 등 관광

명소가 산재한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북촌일대를 돌아보면 기분전환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정현주 기자

서울미술관 근처 가 볼만한 곳



서울미술관 근처에 볼만한 곳이 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별서(別墅)

로 사용되어 대원군의 호를 딴 ‘석과정(石坡亭)’이다.

수려한 건축뿐 아니라 인왕산의 빼어난 경치까지 전망 가능하다(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호). 미술관 관람객이라면 입장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관람 가능하니, 꼭 가보기를 추천한다.

/ 정현주 기자



온누리 드림챔버오케스트라가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단원 및 보조교사를 모집한다.

아름다운 연주 하나님께 'Dream'

'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사랑의 하모니로 감동을 전달하는 온누리 드림챔버오케스트라가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현악기(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관악기(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본, 호른), 타악기, 건반악기(피아노, 신디사이저)파트다. 대상은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다.

접수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신청양식(이름/지원파트/학년/부모님성함/연락처/주소/기도제목)을 따라 기입해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3월 2일 오전 11시 30분, 양재 한동홀에서 면접(부모님 대동)을 진행한

다. 자유곡 1곡과 스케일(2옥타브)을 준비해 오면 된다.

청년부와 성인 트레이너(파트교사)도 모집 중이다. 악기 튜닝과 보조지도가 가능한 성도를 우대한다. 3월 2일 단원 오디션과 동일한 일정으로 면접이 실시된다. 자유곡 악보 사본 1부를 준비하면 된다.

문의: 010-3260-9137 손지아

/ 박익새 기자

한동대 정순흥 총장 취임예배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
이 이임하고
정순흥 총장
이 취임했다.

지난 4일 한동대학교 효암관에서 총장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이재훈 목사, 한동대 김범일 이사장,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목사,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

사, 박승호 포항시장 등 외부 인사와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 10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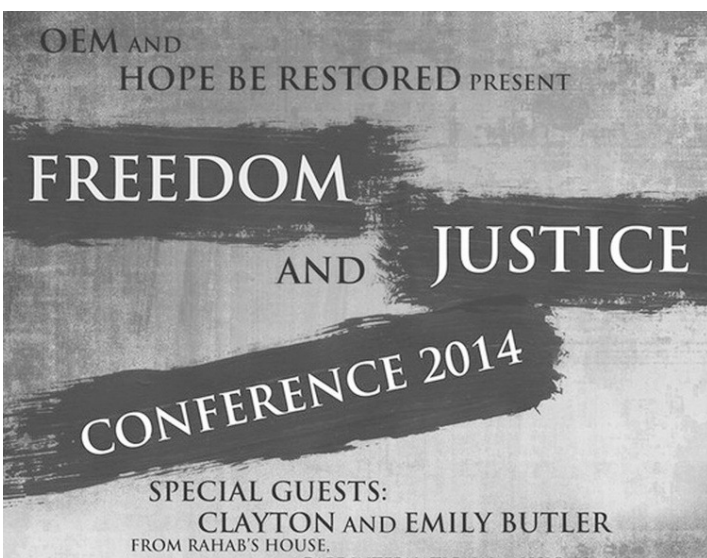
김 총장은 이임사에서 "앞으로는 한동대학교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취임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계와 인류에 기여하는 총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김남원 부장



유우상 장로 소천... 유우상 장로가 지병으로 소천했다. 지난 2월 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유우상 장로 천국환송예배를 드렸다. 박종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한백진 장로 대표기도, 장로합창단 특선,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유가족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1998년 장립된 유우상 장로는 모세대학, 장례사역, 사이닝글로리, 가정사역 등을 섬겼다.



영어예배, 자유와 정의 컨퍼런스 연다

2월 14~15일 서빙고 경찬홀

영어예배(OEM)에서 '자유와 정의(Freedom and Justice)'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연다.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서빙고 선교관 5층 경찬홀에서 진행된다. 클레이튼 버틀러, 에밀리 버틀러 선교사 부부(아가페 인터내셔널 미션)가 강사로 초청됐다.

▷왜 교회가 성매매 문제의 답이 되어야 하는가 ▷성매매 예방의 본보기 ▷공급차단법 ▷수요에 대처

하는 법 ▷질의응답(Q&A) ▷후속관리 전략 ▷인식에서 행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한국어 동시통역기가 준비될 예정이다.

클레이튼, 에밀리 버틀러 선교사가 사역하는 아가페 인터내셔널 미션(AIM)은 성 인신매매에 대해 싸우며 캄보디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선구적 단체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온누리 전도학교 10기 훈련생 모집

온누리 전도학교 10기 과정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11주 동안 서빙고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전도학교를 수강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아이스쿨(www.ionnuri.org) 또는 주일 서빙고 홍보관 앞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누리 전도학교는 '5분 전도 훈련-당신은 행복하십니까?'를 주제로 열린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문상찬 팀장(010-4572-7373)

가정사역자 양성 아카데미 개최

햇빛트리니티 평생교육원에서 가정사역자 양성 아카데미(One Flesh)를 개최한다. 오는 3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열린다. 가정사역에 헌신했거나 부부 강사의 비전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왜 가정이 중요한가' 등을 배운다. 강사는 (사)함께하는 가정운동본부 이사장 박희철 목사와, 본부장 이은영 사모다.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겉옷과 크레딧 카드

"발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마24:18).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셨다. 그 중에 겉옷과 관련된 말씀이 석연찮다. 겉옷이 무슨 귀중품이라도 된다고 그 급박한 때에 농부들이 겉옷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간다는 것일까.

겉옷은 세마포로 만든 속옷과 달리 주로 양털로 만들었다. 성서시대 농부들은 대부분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 당시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던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당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겉옷을 잡히면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겉옷 자체가 비싼 옷감으로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겉옷의 네 귀퉁이에 달린 '술' 때문이다.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불리는 술은 긴실로 번역할 수 있다. 겉옷의 네 귀에 달린 술의 매듭은 사람마다 달랐는데, 술의 매듭을 진흙 토판에 찍어 자국을 남기면 돈이나 양식을 빌릴 수 있었다. 오늘날 크레딧 카드나 인감도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서시대는 모든 재화와 상품이 한정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하게 살아야 했다. 겉옷을 전당 잡혀 목숨을 연명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율법은 겉옷을 전당 잡지 못하도록 명령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송사하며 속옷을 가져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명령하셨다. 당시 겉옷의 의미를 생각할 때, 겉옷까지 아낌없이 주라는 산상수훈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는 수준 높은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마5:40)

/ 류모세 선교사(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대표)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대로 해보는 믿음

고기는 밤에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잡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곳을 밤새도록 다녔다는 것은 다녀볼 만 한 곳은 모두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날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상식이나 경험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5절).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세 앞에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도 모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보는 믿음이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온전한 순종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세계관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세계관을 찢습니다. 우상과 편견, 고집과 자존심이 찢어져야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세계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과 경향이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8절).

그는 이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두려워서 주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10절).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 않는 어부는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인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4년 아이스쿨 강좌안내

<서빙고>

18기 서빙고 전도폭발훈련 (주간/저녁반)
기간: 주간반- 3월4일 ~ 6월17일(매주 화)

10시~15시

저녁반- 3월5일 ~ 6월18일(매주 수)

19시30분~21시30분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외 3곳

회비: 7만원

문의: 이태열 010 - 8891 - 9780

주간반: 이규성 010 - 3388 - 0676

저녁반: 김규석 010 - 6384 - 3024

아름다운 동행 141기 (부부코칭 프로그램)

기간: 3월15일~5월31일(매주 토요일 15시)

장소: 서빙고 비전홀

문의: 이은호 010-7744-6906

조성환 010-5269-9725

아름다운 동행 코치반 6기

기간: 3월15일~5월31일(매주 토요일 15시)

장소: 서빙고 비전홀

문의: 이은호 010-7744-6906

조성환 010-5269-9725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01기

기간: 3월29일~4월19일(매주 토 15시~일

18시, 4주차 토 10시~18시)

장소: 광림수도원

문의: 이규영 총무 010-8981-5831

목요중보기도학교

개요: 기도를 통한 삶의 변화

일시: 3월13일~4월10일 매주 목요일

10시30분~14시30분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홀

회비: 3만원(하나은행/ 573-910003-30004 /

중보기도)

문의: 박정숙 팀장 010-3181-6426

김숙경 간사 02-3215-3220

39기 젊은부부학교

일정: 3월29일~4월19일 매주 토 15시~22시

(4월5일, 4월12일은 1박 2일)

장소: 서빙고 한동홀, 두란노홀, 파주흥원연수원

문의: 김선율 010-7547-5709

남선덕 010-3903-9452

<양재>

양재 성경통독학교

일정: 2014년 3월 26일 ~ 4월 24일 화, 목

오후 7시

장소: 콘서트홀

문의: 이연희 권사 010-7388-9900

전도폭발훈련 1단계(최봉오 목사반)

일정: 2014년 3월 2일 ~ 6월 1일

매주 주일 오후 1시40분

장소: 추후공지

문의: 02-570-7433

양재 전도폭발훈련 2단계(김주현 강사반)

일정: 2014년 3월 2일 ~ 6월 1일

매주 주일 오후 1시40분

장소: 추후공지

문의: 02-570-7433

양재 전도폭발훈련 3단계(전휘경 강사반)

일정: 2014년 3월 2일 ~ 6월 1일

매주 주일 오후 1시40분

장소: 추후공지

문의: 02-570-7433

양재 전도폭발훈련 4단계(이영미 강사반)

일정: 2014년 3월 2일 ~ 6월 1일

매주 주일 오후 1시40분

장소: 추후공지

문의: 02-570-7433

화요 기도학교

일정: 2014년 3월4일 ~ 5월 27일

매주 화 오전 10시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문선희 총무 010-6212-3451

하트스쿨 사역자학교

일정: 2014년 3월 22일 ~ 6월 28일

매주 토 오후 2시 30분

장소: JDS홀

문의: 02-570-7522

<강동>

강동 일대일양육자반(성종원목사반)

일정: 2014년3월11일 ~ 6월24일

매주(화) 19시30분

장소: 11층 두란노홀

문의: 목회지원실(02-475-9686)

강동 OBC(로마서)

일정: 2014년 3월2일~4월20일

매주(주일) 14시

장소: 11층 두란노홀

문의: 목회지원실(02-475-9686)

<대전>

북한선교학교

일정: 2월16일~3월30일 매주 주일 18시

장소: 4층 비전홀

문의: 목회지원실(042-825-3642)

QT BASIC 세미나

일정: 3월5일 ~ 3월26일 매주 수요일 19시30분

장소: 6층 분당

문의: 목회지원실(042-825-3642)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박태영 목사)

일정: 3월9일 ~ 6월22일 매주 주일 16시

장소: 302호

문의: 목회지원실(042-825-3642)

온누리 바이블 클럽

OBC로마서 - 대전 중서

일정: 3월9일~5월4일 매주 주일 16시

장소: 304호

문의: 목회지원실(042-825-3642)

온누리 바이블 클럽

OBC로마서 - 대전 여성사역

일정: 3월12일~4월23일 매주 수요일 13시

장소: 304호

문의: 목회지원실(042-825-3642)

온누리 바이블 클럽

OBC로마서 - 대전 동누리

일정: 3월15일~5월10일 매주 토요일 18시

장소: 303호

문의: 목회지원실(042-825-3642)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임용성 목사)

일정: 3월18일~6월24일 매주 화요일 20시

장소: 304호

문의: 목회지원실(042-825-3642)

아, 이 스쿨~!!

온누리교회 모든 스쿨은 iSchool에서~

iSchool

www.onnuri.org

search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서빙고

가정사역

강서

강촌

고양은평

관악금천

광명

김포

노원

동대문중랑

최상철 주성대
현승원 김남경

동작

마포

북누리

서대문

서빙고

성동광진

관악금천

광명

김포

노원

양천

최상철 주성대
현승원 김남경

김대열 진종구
김상희 김명희
김성희 박미애
박미숙 이소금
조현옥 황정숙

김영규 이태열
김지아 이수연
문지혜 최영이
박정란 이성혜
이승연 신혜영
이우람 김광호
정민경 이홍선
추연경 김미자
추은영 김성희
황동근 이재호

유인철 김용구

임덕원 박현
임삼빈 김상용
한세일 정재민

김동원 최영환
박상희 김주형
유시풍 김현국
윤비 김미원
이은범 한경숙
진관경 강주연
최현숙 홍영희
한정은 이영희
홍연주 송혜경

최민실 강아수

강영태 김태운
권성규 김진우
김민종 이준구
김옥태 김동영
김정필 박영구
방선자 박한나
오지연 김명희
이수광 장영호
장철현 김주영
전옥진 박인양
전재우 임진배
최지혜 윤명옥
한은남 이성식
홍지현 김향숙

김옥숙 이경자
김지애 한상인
박선미 김혜숙
박영빈 권기환
박태준 박용필

성종선 조선녀
이정숙 김은희
장영철 이충원
한정옥 이혜은
홍미자 김명희

여의도

영등포구로

요셉

북누리

용산A

용산B

이수

이촌

성종선 조선녀
이정숙 김은희
장영철 이충원
한정옥 이혜은
홍미자 김명희

강남영 석성숙
김주연 박옥화
남해성 김금희
신지호 이철규
신현경 최정자
양창현 배성환
이성미 강윤정

고윤주 김민선
문경희 황의숙
배선영 최백춘
안정은 신지연
유명상 김소현
유이림 김경
이성은 한두진
이지혜 김세은
전혜인 유옥규
정다혜 이승아
정동희 김경미
차민진 황의숙
최아라 이경자
홍유리 육근정
홍은호 이정희
홍지연 임수진

김솔라 송현숙
김재은 이주원
황영식 이종수

김가경 유재은
김성왕 이혜원
김성조 강창우
김숙현 오세은
김주희 박미선
박성호 박용훈
박호관 김대진
서은영 장미영
이철휘 김윤복
정도식 박노민
채도병 박성복
최동욱 허철

김병수 김복균
김성환 이범구
이인선 홍소경
이정화 김세환

김대인 정희준
김주연 김정숙

손정식 김선귀
송영자 땅윤덕
이미영 김경신
이종미 소광숙
임민선 강윤정
장윤정 이경희
진난소 김정숙
차성호 박상홍
최재경 하상진

일본어예배

일산

찬양

특별한초대

하늘

한강

손정식 김선귀
송영자 땅윤덕
이미영 김경신
이종미 소광숙
임민선 강윤정
장윤정 이경희
진난소 김정숙
차성호 박상홍
최재경 하상진

문순영 채미숙
박종근 신민호
신준희 나문채
엄창섭 나문채
이복음
나나아아아아아
장성진 정호석
초노아유미
박준기
칸나리호시미
홍유란
현두웅 김성강

김기훈 방건동
김정은 김은희
박소호 이우경
박주연 조성심
이도에 김진애
정미희 송현주
좌모세 주강호
최경선 정명인

김지현 박유진
김현주 안선희
박지수 김준규
안시내 한혜정
전성심 이금자
홍은영 박미기

김요한 류은규
김현실 박선주
김혜연 남춘희
김혜진 정원선
마은영 이현리
송소영 심민자
신동규 오명식
오희애비 송명희

고승환 조덕형
김경태 김정애
문성희 김매화

박미선 정화성
신부식 배윤호
전지연 하주현
정세운 이영희
정화성 문병환
조성렬 전용우
황지수 류유미

Gil

Pole2

SNS

S브릿지

W

강남C

박미선 정화성
신부식 배윤호
전지연 하주현
정세운 이영희
정화성 문병환
조성렬 전용우
황지수 류유미

김영민 김창현
김예진 유기남
김은경 윤창숙
김찬미 김명희
문재연 김인옥
문재희 송용재
박수아 조연신
송창규 이용수
신경철 김창현
양은진 장미영
윤여담 엄찬용
이정인 이지영
이화연 김연매
이효정 박정란
임영빈 김진화
최은경 최기영
최정현 박혜경
하태성 김순태
홍예진 송용재

박정민 김선경
임슬아 조민아
전규리 문소희
최영신 권수라
하민철 김영진

김민선 신용애
김수연 박주은
박민주 문명희
박학진 이은희
배정은 임충남
손성호 서정혁
윤성빈 성장섭
이영민 윤석진
임승범 성장섭
임혜원 김화숙
조민열 홍병택

주윤규 오석주

기타

양재

주윤규 오석주

강국희 김영선
김선하 황보선
김신애 김지현
김유진 이재선
김정숙 정보경
김종숙 홍혜진
박새보미 윤종재
박솔 최영은
백인식 김진화
백희진 이소영
신혜영 정수미
심현숙 장정심
안국정 문종실
오미영 전경자
이건희 이악식
이민아 김정옥
이우재 허 윤
이장은 유정미
전상희 정영민
전진오 장해룡
전혜성 박근우
정원재 김사연
조아라 김민경
진재경 박찬중
최내희 김영희
한아름 전인순

김대우 정호균
김정연 양윤희
김지영 김정희
상명희 김서경
양상훈 김만호
조인지 문경희
채희승 김선아

김명희 김명숙
김성수 이수광
김여환 박지우
서동근 유용상
신효용 손호영
이미영 임수경
이민숙 신정자
이유정 양근미

김명희 이민정
김승현 김기영
김정수 이흥구
김지호 박영원
김택주 박완서
김혜경 전복숙
박혜성 김영순
부연선 박선향
엄정용 주동욱
윤예현 안경순
이승환 이태중
임근형 이준주
임혜정 최현주
전준길 강부순
정소현 정유희
정윤덕 조혜경
정종일 김진경
정현숙 전혜경
조연익 김진경
최삼희 박순자
홍나현 오미령
홍윤정 정도옥
황선경 황여옥

김대봉 최창수
류현정 김경은
민세범 조진호
안미경 유숙영
이영미 김재희
장덕자 이승은
장지수 이정주

김선영 백성희
김용태 김용호
김화순 김정순
남영우 김민숙
박보고 박혜준
박재희 연정희
안지훈 김용상
유수정 홍성희
윤성원 전구원
이가상 최중길
이희성 최남용
전영환 김창욱
정보람 전희경
정호림 이일선
조연주 김정순
최우연 유미애
최창석 양익환

과천의왕

분당A

분당B

서초A

서초B

서초C

강남C

김선영 백성희
김용태 김용호
김화순 김정순
남영우 김민숙
박보고 박혜준
박재희 연정희
안지훈 김용상
유수정 홍성희
윤성원 전구원
이가상 최중길
이희성 최남용
전영환 김창욱
정보람 전희경
정호림 이일선
조연주 김정순
최우연 유미애
최창석 양익환

백승필 박건용
오은희 유인순
우미라 김장남
윤여민 남영표
이난주 유선옥
홍윙희 정명자
황미영 이윤정

양덕수 김인규
유시철 황의만
정선희 정명옥
최준원 이선주

김선이 송미정
김학준 김태형
이상호 이범상
이정화 신영숙
이혜진 임명희
장성환 김종성
정광자 윤호순
정진환 김종웅
조경실 김명중
홍승문 김응중

이영숙 이상덕
조재은 최순이

강정인 윤혜선
곽호석 권용봉
김선주 이서미
김신주 권정화
배성진 이광윤
손금선 강인숙
한명희 정종경

권영순 유선옥
김주훈 장광우
김혜진 한금원
박재철 황호웅
이혜림 유희봉
정소현 이영희
최무관 임훈규
홍순호 박용희

김대봉 최창수
류현정 김경은
민세범 조진호
안미경 유숙영
이영미 김재희
장덕자 이승은
장지수 이정주

정승연 박명희
조영의 송친영

송파

안양평촌

분당A

분당B

서빙고

강미향 목사반

김영훈 목사반

배홍일 목사반

유수열 목사반

김대진 목사반

김태완 목사반

정승연 박명희
조영의 송친영

강정대 장종웅
권혜경 이은경
김영주 이종원
김재영 권형택
김재영 박승우
김현철 김병열
노현숙 김미희
박은혜 임필순
성상진 나점두
손은숙 이현숙
송진원 유지영
송태호 장상범
양희정 권옥희
유경아 윤혜영
이경미 윤혜영
이월순 이상자
정문화 김지연
조혜정 조다남
지은미 강 춘
최종택 백위현

김혜은 김미숙
백승주 김계순
이성애 김소화
장창성 진재완

김병철
김성옥
김혜경
박도규
박미경
박희철
서연수
송경화
윤미숙
이승현
이준영
정태욱
조명자
조수경
차현아
하송우

김대진 목사반
김지선
노정자
류성기
문광호
박찬영

조은미 박영희
주진영 김은영
최성민 고영규
한효정 김희정
홍선을 류필봉

양재

김승경 조혜숙
김용길 처영운
김태중 전병제
김태화 김정순
도경찬 서도원
박재훈 송동운
손정혜 이은경
이영래 정동영
이은정 이혜숙
이정화 김미경
장미라 오미숙
정봉영 최연경
조민경 심미리
조산래 김유정
조준형 노희정
최연옥 백은옥
KIMDORIS
최연경

특별한초대

배홍일 목사반

유수열 목사반

최성석 목사반

허원희 목사반

오은규 목사반

김대진 목사반

김태완 목사반

조은미 박영희
주진영 김은영
최성민 고영규
한효정 김희정
홍선을 류필봉

고은정 이세윤
김규성 김문갑
김기봉 윤재호
김미선 이지원
김미희 유미정
김민아 임성화
김민지 손복실
김병규 신맹식
김영진 권순형
김유석 최규원
김유영 이혜옥
김은영 임성화
김은정 차유진
김은지 김민정
김지연 윤미경
김지영 권정임
김지현 이승아
김현우 이호영
김한정 차정순
김한태 백승찬
남삼미 진희연
노현미 김현숙
민정선 김도희
박미아 임지영
박선규 이상영
박재현 김광식
박지연 강어수
박지원 조선택

여호수아

방선화 신윤옥
배지희 조혜선
서형원 윤동건
석조은 김미영
손대수 정홍기
송민석 장기영
송아름 장현숙
송이 오지희
송용욱 박진용
신진수 이경민
안유진 원은희
안은진 신현숙
오정환 김조천
오지혜 권혜선
우연희 황소연
위하라 강소영
유기정 이주익
유유정 조선아
이윙희 황혜남
이정숙 이경옥
이창걸 안영성
이혜민 홍희정
이호현 오 명
임지영 홍지은
장선주 박지현
장지은 김묘신
전유진 최계선
정달우 이윤석
정리훈 김정훈
정윤아 박영희

김철주 장로반

최성민 목사반

정재욱 목사반

방선화 신윤옥
배지희 조혜선
서형원 윤동건
석조은 김미영
손대수 정홍기
송민석 장기영
송아름 장현숙
송이 오지희
송용욱 박진용
신진수 이경민
안유진 원은희
안은진 신현숙
오정환 김조천
오지혜 권혜선
우연희 황소연
위하라 강소영
유기정 이주익
유유정 조선아
이윙희 황혜남
이정숙 이경옥
이창걸 안영성
이혜민 홍희정
이호현 오 명
임지영 홍지은
장선주 박지현
장지은 김묘신
전유진 최계선
정달우 이윤석
정리훈 김정훈
정윤아 박영희

정재원 이종철
조경환 심규혁
조병주 강 현
조지은 김준옥
조혜진 신윤옥
주혜인 최혜정
최단비 이지영
최주원 박신애
한미성 오은지
한우희 김 준
홍현우 황미하
홍현표 최준영
SEOJONGMIN
이영우

하나

정재원 이종철
조경환 심규혁
조병주 강 현
조지은 김준옥
조혜진 신윤옥
주혜인 최혜정
최단비 이지영
최주원 박신애
한미성 오은지
한우희 김 준
홍현우 황미하
홍현표 최준영
SEOJONGMIN
이영우

하나

허브

Bridge33+

정재원 이종철
조경환 심규혁
조병주 강 현
조지은 김준옥
조혜진 신윤옥
주혜인 최혜정
최단비 이지영
최주원 박신애
한미성 오은지
한우희 김 준
홍현우 황미하
홍현표 최준영
SEOJONGMIN
이영우

관정희 박현주

조미나 이현숙
최효진 송경주

김순영 최정란
김승은 최찬용
김희정 권영선
박영기 김명조
박정용 이상준
이정현 이선옥
장은애 정현주

조영찬 이준희
최영석 백대원

Harmony

J4U

Point5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2월 16일(주일) 2부예배
수료대상자 오전 8:30분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서빙고 분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양재 사랑성전)
-수료예배대상자: 11월 4일~2월 2일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수료증은 수료예배 후 해당 캠퍼스 일대일안내데스크에서 배부합니다.
(서빙고-본관 1층 일대일안내데스크 / 양재-사랑성전 로비 일대일안내데스크)

서빙고

강미향 목사반

김영훈 목사반

배홍일 목사반

유수열 목사반

김대진 목사반

김태완 목사반

서승민 성정대
안성자 이승찬
이정희 임경미
조대선 조성희
허 완

심은진 안정은
윤지연 이금산
이명희 이미경
이혜진 이혜정
전채주 최성일
홍기순 황성웅

최성석 목사반

허원희 목사반

오은규 목사반

이한규 목사반

김선미 김진경
서미순 손미정
송윤례 송정성

임미경 조광래
한광식 한명진

김철주 장로반

최성민 목사반

정재욱 목사반

임미경 조광래
한광식 한명진

김철주 장로반

최성민 목사반

정재욱 목사반

jung2000
sjeon
yooni102

박성희 목사반

강신원 공유택
김경숙 김대영
박상무 성현주
송현정 이강신
장서봉 정윤석
최정은 탁영웅
홍동호

박태영 목사반

김정희 김지현
김현영 박병수
박성자 박희자
서수정 송진용
신미영 안병웅
안정혁 엄진용
윤기준 이백권

이인자 이주임
이충원 장선아
정형웅 조제열
최명숙 한상수
한상숙 한희진
iactive38

권오인 김민주
남규승 성정은
윤영철 임선희
조인수 최소영
최윤정 하진욱

정재욱 목사반

강영임 김은주
박윤선 신종희
안은숙 윤애경
이중순 이혜윤
장애란 전소정
정혜정 조미혜

조은하 최세윤
함정화 장선아
김수영 김선근
김은영 김인숙
김정은 박애선
박은영 박진재
백진숙 서성호
양미숙 오병길
오혜경 유성재
윤상복 윤희돈
이범석 이병진
이성호 이윤석
이종은 임 선
장명원 조순호
조현영 최한규